2026
11월

한길교회 구역교재

겉은 깨지기 쉬우나 속은 단단하니 (고린도후서 4:1-18)

한길교회 The Way Church

「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 94장, 구 102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1958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예수 초상화 한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삼류 화가의 모조품으로 평가절하했고, 작품은 고작 45파운드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적외선 조명을 비추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덧칠해진 물감 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유의 붓 터치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미술사상 세계 최고가를 기록한 다빈치의 명작 '살바토르 문디'(구세주)입니다. 겉보기에 가치 없어 보여도 진리의 빛을 비추면 숨겨져 있던 본래의 가치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눈에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

1.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1-6절).

1) 바울은 자신의 자격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2절)

2)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이는 누구입니까?(6절)

나눔 1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은 내 마음의 완고한 시선도 따스하게 밝혀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관념에 갇혀 누군가를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빛(말씀)에 의해서 내 판단과 시선이 변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2. 겉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7-18절).

1)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에 담아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7절)

2)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1절)

3) 세월이 흐르고 환난을 겪으며 몸이 쇠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나눔 2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고 싶지만,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마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화려하게 포장하던 겉모습이 벗겨지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3 질그릇처럼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깨지는 내 심령에 주께서 단단히 채워 주시길 바라는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

삶 _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낙심하는 저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 _ 세상의 시선을 따르지 않고 지체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